

# 전주 제1산단 입주기업 자금운용 '숨통'

### 전주시, NH농협·중소기업인협회와 애로사항 해소 상호 협약... 담보인정 비율 70%로 상향조정 결실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전주 제1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주시와 NH농협은행, 전주시중소기업인협회는 13일 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성래 (사)전주시중소기업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자금 대출에 관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전주 제1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55%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1산단에 입주한 120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그간 제1산단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 노후공단으로 분류된 관계로 담

보인정비율이 55%밖에 되지 않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NH농협은행은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 제1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담보대출시 담보 인정비율을 감정가의 70%까지 상향조정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협약체결에 앞서 전주시중소기업인협회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일자리 부족 △미중간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 했다.

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나갈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전주 제1산단은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인정받는데 제1산단은 노후공단으로 분류돼 담보인정

비율이 55%밖에 되지 않아 입주기업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고 시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공단지역인 팔복동 일원을 전주 서·북부권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만들 3대 중점사업인 △팔복예술공간 2단지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금학천 정비사업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 등 팔복동 문화공간화사업도 전개해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 '따뜻한孝사랑'

### 전북도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어울마당 성료

전북도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선희)는 13일 전주완산교회 연회장에서 도내 노인 300명을 초청하여 시군 및 읍면동 부녀회장 50여명이 봉사자로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효사랑 어울마당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부녀회에서 1997년부터 사랑의 노인심기기 위안잔치와 청와대 효도관광 방문을 2012년까지 꾸준히 실시하여 오다 잠시 중단한 것을 2018년부터 다시 실시 3년째 추진하게 됐다.

부채춤과 장고춤, 민요, 가요 등 공연과 시군별 노인장기자랑 어울마당 시간을 갖고 참석자 전원에게 닭국과 다과로 점심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명자 전라북도 새마을회장, 이해희 후원회장, 14시군 부녀회장이 참석, 회장 인사 노인심기기 선언문 낭독, 노인장기자랑 등 어울마당 시간을 갖고 삼계탕과 다과로 점심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각 시군에서는 밀반찬 나눔, 송편, 제수용품 등을 회원들이 손수 준비해 홀로 사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희망있는 내일, 키움통장과 함께

### 전주시, 가입자 대상 재무설계 요령 등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시청 강당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설계 요령 등을 소개하는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중도 탈락을 막고, 성공적인 자립과 자활 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며, 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 중 총 4회 이상 교육이수를 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김선양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과장이 강사로 나서 합리적인 지출 관리 및 금융'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특히, 김 강사는 금융의 기본상식부

터 지출 흐름을 파악해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등 재무의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근로빈곤층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해 탈수급 및 자립할 수 있는 종차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역 자활센터(완산구, 063-288-9005) 덕진지역자활센터(덕진구, 063-283-8384) 전주시 사회적경제과(063-281-20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도식 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 속에 희망이 있는 내일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물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추석 맞이 은누리상품권 13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직원 및 자생단체 회원들이 은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 전주여성새일센터, 두드림 등 20개 업체와 일촌기업 협약

전주시가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성인력 채용에 앞장서는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전주여성새일하기센터'는 13일 센터 4층 민들레홀에서 (주)두드림 등 전주지역 20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그간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 온 기업들이다.

이들 대표들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 △여성인력 적극 채용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 여성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친화일촌기업' 90개 중 △여성인력 채용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여성 고용유지율 등에서 모범을 보여온 사랑나눔복지센터(대표 박현숙)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 시상했다.

박성숙 전주여성새일하기센터장은 "기업이 요구하는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해 이들 기업에게 원활한 구인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을 체결한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가운요양원, (주)와이앤제이푸드, (유)청샘비엔에프, 전주사회서비스센터, 행복의집, 주식회사 두드림, 의료법인생명의료재단 늘푸른요양병원, (유)맛다자인, 돈대문, 은행나무재가복지센터, (유)대방, 궁정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 주식회사 비전산업, 삼일산업, 트라웍스(주), 실버복지센터, 전주라마다호텔, (주)감각교육, 전주다솔아동병원, 전주한옥태조공관광호텔 등 20곳이다. /송효철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 말레이시아인 현금수거책 검거

### 전북경찰, 피해자 만나 현금 800만원 전달하려던 차 붙잡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원을 조직에 전달하려던 말레이시아인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팀(김중안 경사 등 9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몰품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체하고, 납치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

여 현금을 전달받으려던 외국인A(34세, 남, 말레이시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경 금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가져다 놓은 현금(효자동 롯데마트 보관함 두 곳, 850만원, 1,500만원)을 넣어두자 이를 찾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했

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12시 30분경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이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현금을 요구당한 피해자가 800만원을 들고 효자동 롯데마트 앞에 나타나자 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 말레이시아인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잠적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은 지난 12일 병원 현관 앞에서 투렛박병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진행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은 투렛박병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릴레이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된 김영진 원장은 원광대 최두영 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수행했다.

한편 김 원장은 다음 지목대상자로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 교육장, 그리고 군산소방서 유우종 서장을 초청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완산구, 추석대비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전주시 완산구청은 농수산물 및 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을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합동 단속반을 꾸려 시행된다.

구청에 따르면, 도·시·구 담당자 및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5명의 합동단속반이 대형매장 및 기업형 슈퍼, 전통시장, 축산물 운반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준수여부를 포함한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단계의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분쇄 가공육이나 달걀 등 일부 품목은 수

거하여 관련기관에 이력번호 준수여부 확인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거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완산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후에도 처벌업소를 중점 점검업소로 하여 시장 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재가어르신 사랑나들이

전주 덕진노인복지관은 13일 부안군 일원에서 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바닷길 따라 떠나는 행복한 사랑나들이'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홀로 거주하는 재가어르신들이 고독감을 해소하고, 환경·정서적인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복지관은 평소 경제·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목욕탕 등 바깥 외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외식과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혼자 목욕탕에 갈 수 없었는데 복지관의 도움으로 목욕도 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갑주 덕진노인복지관장은 "재가 어르신들에게 외식지원 및 목욕지원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외로운 재가어르신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세정과와 전북은행 시청지점이 어려운 이웃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 추석맞이 훈훈한 이웃사랑 나눔

### 전주시 세정과-전북은행 시청지점, 복지시설 선물 전달

전주시 세정과와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지사각 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시 세정과와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은 지난 12일 중화동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과 삼천동 소망지역아동센터에 백미 10Kg 15포대와 생필품 등 총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웃사랑 실천은 전북은행의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들어요'라는 사람중심의 모토에 따라 은행이의 지역사회 환원과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삼용 시 세정과장은 "추석맞이 이웃사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전북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너 많은 기업들이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이외에도 △삼보디아 근로자의 가족과 함께하는 웰컴투코리아 △초등학생 경제교육 △JB 공부나눔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